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 자력자강의 기세드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매진, 총돌격하자!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전민총동맹전을 벌여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며 혁명의 진성기운을 대대적으로 이어나갈데 대한 위대한 당의 계속혁명사상이 전민의 심장을 새차게 울리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조국정사에 특기할 민족사적인 대경시의 해인 올해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분수령을 마련하기 위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소집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만리마를 탄 기세로 질풍노도처럼 내달리고있는 주체조선의 영웅적전군을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세상에 과시한 만리마선구자대회소집과 관련한 소식은 온 나라 인민들에게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나래를 달아주고 적대세력의 아성을 흔들시는 장쾌한 수호탄미사일 발사 모두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었다.

지금 강원도인민들의 기세는 동해의 격랑처럼 새고 마시명의 산악처럼 든든하다.

선군시대의 혁명적전진선인 탄생한 력사의 땅에서 만리마시대의 본보기정신인 강원도정신이 또다시 창조되고 우리들은 그 자랑스러운 주인공이 되였다.

강직의 그날을 정녕 잊을수 없다.

지난해 12월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으며 강원도사람들을 자력자강의 위대한 생필력을 실현으로 증명할 불굴의 투사들로, 시대의 전열을 앞장서서 이끌어주는 영웅적전군을 기대하는 만리마선구자대회의 크나큰 믿음은 끝없는 격정속에 받아안은 우리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강원도인민들에게서 온 힘을 얻었고, 강원도인민들이 사회주의강국의 넋을 남기며 열어제끼려하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사실 불굴의 정신력의 창조자, 자력자강의 선구자로 내세워주시기 위하여 장군님의 과분한 평가를 심장속에 소중히 새겨두고 자력으로 일떠서려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기 위하여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가르치심대로 뉘그러나 시대정신의 창조자로 영광의 길정에 올라설것을 우리모두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우리들은 강원도를 전당적인 기준으로, 전국의 본보기도로 내세워주시기 위하여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에 걸사의 실천으로 보답할 불타는 결의를 굳게 다지며서 올해말에 열리게 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매진, 총돌격할것을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승리해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활짝있는 전진해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영웅적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소이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서는 모두가 만리마기수, 만리마선구자대의 영예를 떨치는것을 위하여 당의 요구이고 시대의 격박한 부름이다.

오늘의 하루하루는 당 제7차대회 빛내던 70일전투, 200일전투의 연속이다.

기적의 2016년에 만리마를 타고 대비약을 이룩한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승리의 위장한 미래를 내다보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만리마선구자단위, 만리마기수들이 더 많이 배출되고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가 빨라질수록 사회주의강국의 패일이 앞당겨지며 우리 인민의 아름다움과 꿈과 비상이 현실로 꽃피어날 것이다.

모두가 《통무는 만리마를 뺀가?》라는 불운에 심장으로 대답하며 순간순간을 새 기록, 새 기준 향로의 끝없는 위훈으로 빛내이자!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을 위하여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거이 실현하기 위한 수병의 유공관찰권이 만리마기수는 수병적사용위의 선봉투사들이다.

위대한 수병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공,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 때 승리의 길이 열리고 행복의 때일이 앞당겨진다는 철리를 우리 강원도사람들은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의 격전장에서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대규모발전소를 건설해본 경험도 없고 경제도대도 빈약하였지만 우리 강원도인민들은 그저 불타는 불로 발전소건설에 겨우 찾아오시었던 위대한 장군님의 눈물겨운 헌신과 로고를 가슴저리게 느끼며 완치한치 언젠가 맞았고 불길같은 걸사적으로 일어나갔다.

하여 오늘날은 도가 정거력을 보면서 현실시는 불온 적들과 교를 맞고있는 열린과 금강시역까지 사회주의불빛을 환히 밝히고있으며 크고 작은 공장, 기업소들을 만우하로 광광 돌리고있다.

수병의 유공관찰이려면 그 어떤 고난과 시련앞에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한치의 양보도 모르며 당정책위원의 길에서는 목숨도 주저없이 바치는 걸사의 정신이 바로 오늘날의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추풍백인 강원도정신이다.

올해 우리는 군민발전소건설과 불원강철광장개발을 최우적으로 밀고나가며 도양도장을 전국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일떠세우고 총원남새전문협동농장을 평양시의 장원남새전문협동농장처럼 최첨단하게 전면시설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우리 강원도사람들은 누구나 만리마기수, 만리마선구자가 되어 위대한 수병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올릴 제일 자랑스럽고 훌륭한 총정의 선봉, 승리의 로고를 안고 만리마선구자대회에 남기지 못할 것이 없다.

전국의 근로자들이여!  
자기 부분,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병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공을 몸이 원로각, 만조각이 난데도 걸사관철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만드는 여기에 수병의 유공을 가장 훌륭하게, 가장 진실하게, 가장 완벽하게 관철하는 끝없는 길이 있으며 만리마시대의 참된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 있다.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위대한 승리로 우리 운명의 때양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걸사옹위하자!  
승리의 백과전서, 혁명의 교과서인 우리 당정책을 자기 고장에 남기며 눈부신 현실로 펼쳐가는 당정책위원의 제일기수, 제일관철자가 되자!  
만리마선구자는 자력자강의 최강자이다.  
자력자강은 우리 조국을 강성민국의 명마무에 우뚝 올려세우는 필승의 보검이며 만복의 열쇠이다.  
지금 원수들은 이 땅에서 경제강국건설의 승전포성이 울리지 못하게 하여 큰업들은 우리 당의 권위,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심을 허물어보려고 어리석고 비렬하게 날뛰고있다.

초보적인 생존공간, 마지막숨줄까지 끊어버려려는 미제와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의 야만적인 《초강경제세는 우리의 자력자강만이 살길이고 승리라는 우리의 신념을 더욱 백배해주고있다.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에는 세계가 보란듯이 강원도사람들이 끔찍하게 새긴 《자력자강》이라는 대명사가 있다.

이제는 우리 강원도사람들속에 책임일군으로부터 평범한 근로자들에 이르기까지 무슨 과제가 제기되면 남을 쳐다보며 손을 내미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 생활에서 불가능이라는 말은 사라졌다.

땀으로 연길목련을 만들어낸 항일의 자력자강의 선구자처럼 자력자강의 과업을 단강약하였기에 우리는 지난 시기에는 엄두도 낼수 없었던 전로형초고전력전기모터와 특연전구생산지기건설에 도대담하게 달려붙을수 있었고 시추기와 전동기, 각종 타일과 위생자기를 비롯한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만들어낼수 있었다.

위대한 수병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심어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빛내여주시는 자력자강의 정신이야말로 강원도사람들이 불굴의 정신력의 강자들로 여세를 자라나게 한 자랑본고이 세손으로 가온 행렬의 열매로 전기력, 소금력, 생필품을 보는 오늘날을 안아온 전민의 원천이다.

만리마대전군의 영예로운 참전자들이여!  
자력자강의 끈적끈적한 창조불로 원수들의 정수리에 철추를 내리며 조선의 본대를 민방에 떨치자!  
모든 도, 시, 군들을 자기 명예에 있는 자기것을 가지고 자력자강하며 총하고 민생하는 자급자족적으로 전진시키자!  
수입병이라는 말자체를 종지부를 찍고 우리의 것으로 세계적인것을 더 많이 창조하자!  
우리 상표를 단 명제품, 명상품들을 땀방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이 가라게 하자!  
자력자강은 곧 과학기술력이며 과학기술은 무장조국건설의 위력한 보검이다.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자랑하는 우리 강원도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신심에 넘쳐있는것은 과학기술을 자기 손에 확고히 틀어쥐고있기때문이다.

당의 높은 평가를 받은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와 거기에 갖추어놓은 인공광터와 고무열판, 수직의자를 비롯한 자력자강의 산물들은 그 어느것이나 도자체의 과학기술력에게 의지하여 마련한 소중한 재부들이다.

우리 혁명의 강력한 핵심부대, 핵심력량인 과학자, 기술자들이여!  
《착각성》탄도안과 같은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무기들을 만들어 내는 국방과학자들과 원수들의 최신기술적야망을 침략과전의 불길로 짓부셔버리자!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수호선, 사회주의수호선의 전초방어는 걸사의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며 세계를 압도하는 첨단수준의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창조하자!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국산화실현에서 나서서 과학기술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시해와 열정을 창고리 바쳐 앞장서서 열매를 추렴지우자!  
누구나 과학기술공사를 자기 가사처럼 여기고 배우고 또 배워 과학기술인재가 되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 단위의 생산성상승과 현대화에서 한몫 단단히 하는 창의고인의 명수, 발명가가 되자!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은 끝없는 공격정신으로 새 기록, 새 기준을 돌파하며 끊임없이 비약하는 거창한 투쟁이다.

시련과 난관앞에 순건의 두려움도 범함도 모르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질주하는 강용한 기상, 성과에 자만을 모르는 강한 일위성, 사회주의승리를 확신하는 혁명적합판, 이것이 만리마선구자대회의 사상정신적특질이고 투쟁방식이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 격동의 시대에 원리와 담보는 허용될수 없다.

우리 강원도에서 인민정권20발전소와 원산정년발전소건설에 이어 방대한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을 완공하고 또다시 여러 발전소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가고있는 대단한 작전의 근저에는 바로 백두의 글합없는 공격정신이 맥박치고있다.

우리는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맞으며 뜻깊은 6월 10일까지 도적으로 삼만년도 인민경제계획을, 10월 8일까지는 원산시구공장과 총동원종합시공공장을 비롯한 주요공장, 기업소들에서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중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알루미나공정사운전을 삼만년안에 전행하는것을 비롯하여 올해에 계획된 건설대상들을 거이 완공함으로써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큰공헌을 내디디겠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총전의 기록과 신적을 끊임없이 경신하며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자!

한KW의 전력, 한의 석탄, 한치의 쇠붙도 원수들에게 들켜우는 반발반박의 폭탄으로 여기고 중산하고 또 중산하자!  
인민군대의 강행들과정신, 단숨에의 기상을 본받아 출진한 공격적으로 나라의 방방곡곡, 동서해전

역에 참공진, 황금산, 황금의 최한한 선정을 하루 빨리 펼치자!  
강공업공정들이 만리마의 고비를 뛰어넘고 용을 쓰며 일파의 가방사태, 이불폭포와 같은 인민생활향상의 효험한 결실들을 더 많이 안아오자!  
인민경제 부문과 부문, 공장과 공장, 작업장과 작업장사이에서 파파알기, 파파배우기, 경험교환을 통해 활발히 벌려 사회주의증산경쟁도표들에 기적의 만리마들이 다다르도록 하자!  
누구나 만리마의 주인, 만리마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고귀한 피와 땀을 바친 혁명의 전세대에 한걸 부끄럼없이, 후대들의 맑은 눈동자에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강성민국을 열어놓은 만리마시대의 영예로운 참전자로서, 자랑스럽게 비결수 있게 오늘날의 하루하루를 기적과 위훈으로 빛내이자!

오늘의 만리마시대는 청년들의 활무대이다.  
백두산정년대강국의 주인공들은 청년들이여!  
선군만마와도 같은 투쟁기상으로 대고격적정전들을 청년판으로 들춰내며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이렇고 힘은 진구마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자!

먼 후날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있는가》의 노래를 궁지높이 부를수 있도록 청춘의 자서전에 영웅적위훈을 새기자!  
전국의 근로자들이여!  
영광스러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빛나게 아로새겨진 만리마선구자대회가 우리모두를 부르고있다.  
《만리마선구자의 노래》 힘차게 울리며 전열속의 만리마가 새기를 주름잡던 그때처럼 《우리는 만리마기수》의 노래를 우렁차게 부르며 기적의 만리마가 세계를 디디고 날아오르게 하자!  
마지막과 추풍세력을 우리의 만리마대전군을 가로막으려고 제아무리 피를 물고 남뱀에도 세계의 유입무이한 입심단결의 불가항적적위력이 있고 동맹의 해국, 군사자강의 성세가 있으며 주체파와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는 파하여다.

평행한 미래를 향해 돌진하는 총원군대들의 진두에 인민의 아름다움과 꿈과 리상을 헌신로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다.  
만리마시대의 위대한 창조자이시며 창조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따라 세계를 놀래우는 영웅시대, 자력자강의 기념비들을 다발적으로, 번발적으로 창조해나가자!  
우리모두 승리의 함께관을 안고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서 땀이 만나자!  
자력자강의 기세드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매진, 총돌격하자!

주제106 (2017)년 3월 6일  
전민총동맹전을 힘있게 벌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강원도군중대회 참가자일동